

보 도 자 료

부천경찰서 수사시비사건 수사결과

1986. 7. 16

인천지방검찰청

1. 수 사 경 위

- 0 인천지방검찰청은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접취, 자신의 주민등록증으로 변조하여 부천시 소재 주식회사 성신에 위장취업한 사실과 관련하여 절도죄와 공문서 변조죄 등으로 인천소년교도소에 구속되어 있던 권인숙으로부터 자신이 부천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부천경찰서 수사과 근무 문경장으로 부터 폭행과 성적 모욕 행위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고소장을 86. 7. 3 접수 하고 (문경장, 다 형제인 동생에게서 7.5 접수)
- 0 문귀동으로부터도 86.7.3 권인숙이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자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내용의 고소장과 7. 5 허위고소로 무고하였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각각 접수 하여
- 0 86. 7. 3 - 7.16까지 동 고소 사실들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집중 수사를 전개하였음.

0 인천지검은 그동안

- 사건 당사자인 위 문귀동을 7회, 권인숙을 8회 소환,

조사하였고

- 관련 참고인 43명을 소환, 진술을 들었으며

- 또한 사건현장에 대한 면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등 가능한 모든 조사를 실시하였음.

2. 수 사 결 과

0 권인숙의 고소 사실중 86. 6. 7 21:00 - 23:00사이 문귀동이

권인숙을 조사하면서 성적 모욕 행위를 가했다는 부분은

- 문귀동이 조사를 행한 조 사실은 2면벽이 유리창으로 되어

있어 안이 들여다 보이고/조 사실 뒷편에 있는 무기고의

전등불빛이 조 사실 안으로 비치고 있었을뿐 아니라 당시

바로 옆의 조 사실에서도 다른 경찰관들이 날씨가 더워

모두 문을 열어 놓은채 다른 피의자를 조사하면서 문귀동

의 조 사실 앞을 왔다갔다한 사실이 있었으며

- 또한 권인숙과 함께 부천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되어 있던

최모 여인(32세), 박모 여인(30세) 등도 참고인 진술에서 조사받

유치장에서

권인숙이 폭행을 당했다는 말은 한 일이 있으나 성적모욕

을 당했다는 말은 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옆 조 사실에서 조사를 한> 경찰관 김해성, 권오성, 박경천

등도 그와같은 사실을 목격하거나 감지한바 없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사실로 인정할 수 없음

0 그러나 권인숙의 고소 사실중

- 86. 6. 6 04:00 - 06:30. 문귀동이 부천경찰서 제5조 사실

에서 권인숙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인천소요사건 관련

수배자의 소재를 알아내기 위해 아는 사람의 이름과 주

대라고 거듭 요구했으나 권인숙이 완강히 아는 사람이 없다

고 말하자 권인숙에게 자켓을 벗게한 후 티셔스를 입은

가슴부위를 손으로 3 - 4회 쥐어박아 폭행을 가한 사실과

- 86. 6. 7 21:00 - 23:00. 문귀동이 부천경찰서 제2조 사실

에서 같은 내용을 조사하던중 권인숙이 전일과 마찬가지로

계속하여 아는 사람이 없다고 말하자 권인숙에게 또 다시

가슴부위를 손으로 3 - 4회 쥐어박아 폭행을 가한 사실등은

- 문귀동이 자백하고 있을뿐. 아니라 기타 증거에 의하여 사실로 인정됨.

3. 처 리

0 이상과 같이 권인숙의 고소 사실중 성적 모욕 행위 부분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으나 폭언, 폭행 부분은 일부

사실이 인정됨

0 폭언, 폭행 부분은 문이 조사에 집착한 나머지 저지른 우발적

인 과오로서 이로 인해 이미 파면처분을 받았으며

0 문귀동은 10년 이상 경찰에 봉직하면서 성실하게 근무하여

왔고,

0 현재 자신의 과오를 깊이 반성하고 있으므로 검찰은 이와같은

정상을 참작 문귀동을 기소유예 처분할 방침임.

(자 료)

사건의 성격

0 급진좌경사상에 의한 노학 연계투쟁을 전개해왔던 권인숙의

"성적모욕"의 허위사실 주장은 운동권세력이 상습적으로

벌이고 있는 소위 의식화투쟁의 일환으로서

0 폭행사실을 성 모욕행위로 날조. 왜곡함으로써 자신의 구명과

아울러 일선 수사기관의 위신을 실추시키고 반체제 혁명투

을 사회일반으로 확산시켜 정부의 공권력을 무력화 시키려는

의도로 판단됨.

0 이러한 사실은 동 권인숙이 학원 의식화투쟁을 벌이다가

성적불량으로 대학 4년 제적후 (서울대 가정대 의류학과),

부모의 권유도 뿌리치고 가출한 후 위장취업으로 노동현장

으로 뛰어들어 반정부, 반체제 투쟁활동을 전개한 전력을

볼 때에도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음.